

한반도 르네상스 구현을 위한

# VIP 리포트

- 부동산 간접투자시장의 특징과 시사점  
- 간접투자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발행인 : 하 태 형  
편집주간 : 한 상 완  
편집위원 : 주 원, 백흥기  
발행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94  
Tel (02)2072-6305 Fax (02)2072-6249  
Homepage. <http://www.hri.co.kr>  
인쇄 :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2636-0555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를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본부(02-2072-6245)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 ■ 부동산 간접투자시장의 특징과 시사점

- 간접투자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Executive Summary .....	i
1. 부동산 간접투자시장의 성장 .....	1
2. 국내 부동산 간접투자시장의 특징 .....	4
3. 시사점 .....	8
【HRI 경제 통계】 .....	11

## &lt; 요약 &gt;

### ■ 부동산 간접투자시장의 급성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 예금, 채권, 주식 등 전통적 투자수단의 수익률이 저조한 가운데 이들 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리츠와 부동산펀드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임대수익이나 매각수익을 향유하는 부동산 간접투자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 ■ 부동산 간접투자시장의 특징

최근 급성장한 국내 부동산간접투자시장의 특징은 첫째, 수익률이 높다는 점이다. 다른 투자 자산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익률을 창출하고 있다. 부동산펀드의 경우 2011년 이후 연평균 10.6%, 리츠 수익률도 8%대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둘째, 투자기구의 유형이 초기의 고수익·고위험 투자 유형 형태에서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형태로 전환되고 있다. 리츠의 경우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에 투자하는 'CR 리츠'에서 최근 '위탁관리리츠' 중심으로 운용되고, 부동산펀드의 경우도 'PF대출형' 및 '개발형'의 비중은 감소하고, 보다 안전한 '임대형'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셋째, 상업용 부동산에 주로 투자하고 있다. 침체를 지속하는 주택시장 보다는 상업용 부동산시장 위주로 투자하며, 최근 들어 해외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도 확대되고 있다. 즉, 2014년 해외형 부동산펀드의 설정 규모는 2006년 대비 28배 급증하면서 전체 부동산펀드의 28.3%를 차지하고 있다.

넷째, 기관투자가 비중이 커지고 있다. 투자의 주체를 보면 개인의 비중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대신 기관투자가들의 비중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의 대체투자수단으로 부동산펀드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 ■ 시사점 : 향후 전망과 과제

일본의 경우 2000년대 들어 초저금리·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부동산경기 침체에 부동산 간접투자시장이 빠르게 성장하였다. 일본의 사례에서처럼 국내 부동산 간접투자시장의 성장은 부동산시장의 패러다임을 직접투자에서 간접투자로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장기침체에 빠진 부동산매매시장을 회복시키고, 비정상적인 주택임대시장의 정상화 차원에서도 부동산간접투자시장을 성장시킬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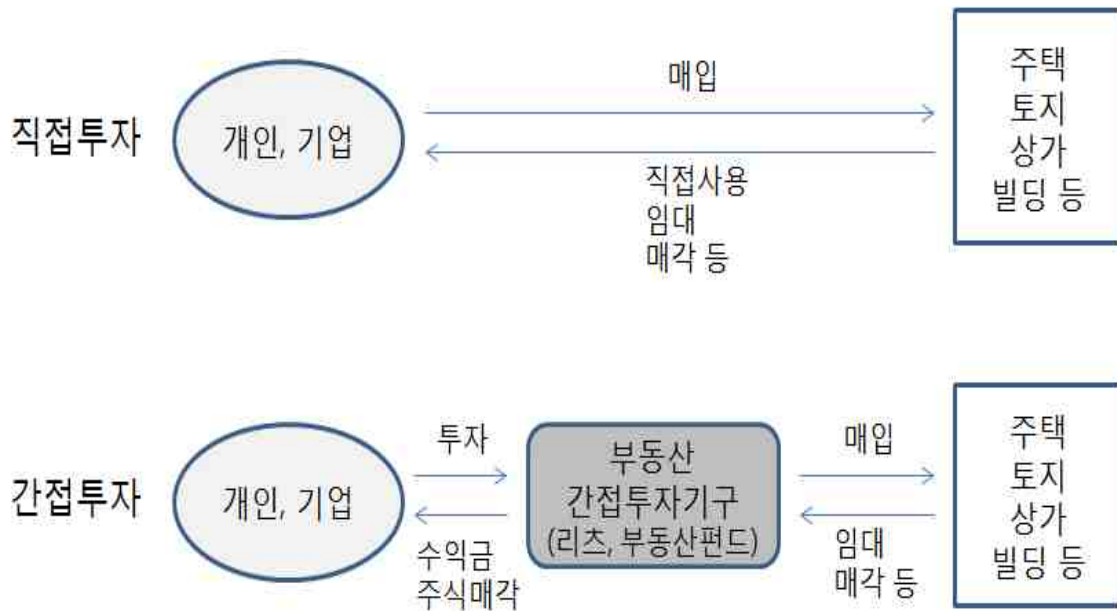
부동산 간접투자시장의 확대는 고령화 대비를 위한 자산증식의 방편으로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기관투자자 위주의 사모 방식에 집중되어 있으며, 일반 소액투자자도 참여 가능한 공모방식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소액투자자 세제지원 혜택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리츠와 부동산펀드로 이원화된 부동산간접투자제도 및 사모투자 관련 법제를 종합적으로 재정비하여, 입법 미비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외 신규 투자대상 발굴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운용의 전문성 제고, 리스크 관리의 강화 등도 절실하다.

## 1. 부동산 간접투자시장의 급성장

○ 부동산시장의 장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리츠와 부동산펀드 등 국내 부동산 간접투자시장은 빠른 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부동산투자는 가계나 사업주체 등이 직접 매입하는 직접투자와 펀드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간접투자로 구분
  - 부동산 직접투자는 개인이나 기업 등이 주거나 사업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또는 임대소득 및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이득을 목적으로 취득
  - 부동산 간접투자는 개인이나 기업 등이 부동산간접투자기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임대나 매각수익을 향유하는 투자(<참고> 참조)

< 부동산 직·간접 투자 개요 >



- 국내 부동산경기 침체로 부동산 직접거래가 크게 위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간접투자시장은 빠르게 성장
  - 리츠는 2002년 도입 이후 미약하게 성장하다가 금융위기 직전부터 빠르게 성장하면서 2014년 6월말 현재 수로는 86개, 순자산은 6.5조원 수준
  - 부동산펀드는 2004년 도입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2014년 9월 말 현재 펀드 수로는 563개, 순자산규모도 같은 기간 0.9조원에서 27.4조원으로 급증 (리츠 보다 약 4배 수준)

< 국내 리츠 추이 >



자료 : 리츠협회.

< 국내 간접투자기구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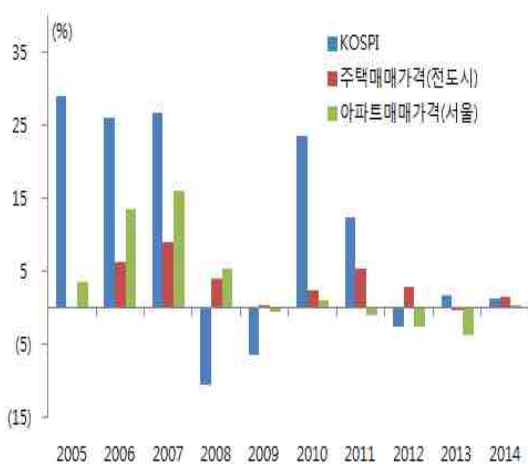
자료 : 금융투자협회.  
주 : 리츠+부동산펀드.

< 참고 > 국내 부동산 간접투자기구 개요

	리츠 (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부동산펀드 (REF: Real Estate Fund)
도입	- 도입 : 2002년 (상법 근거) · 주무 부처 : 국토교통부	- 도입 : 2004년 (자본시장법상 근거) · 주무 부처 : 금융위원회
형태	- 주식회사 · 적립식투자 가능 · 환매 가능 · 상장 또는 비상장	- 간접투자 수익증권 · 거치식투자(폐쇄형) · 중도환매 불가능 · 공모일 경우 반드시 거래소 상장
운용	- 부동산 및 부동산관련 유가증권에 최소 70% 투자 · 부동산 취득세 30% 감면 - 자기자본의 2배 차입 가능 * 주주총회 특별 의결 시 10배 가능 - 발생 수익의 90% 이상을 배당	- 부동산과 부동산관련 유가증권에 50% 이상 투자 · 부동산 취득세 30% 감면 - 자기자본의 2배 차입 가능
유형	- 투자대상에 따른 분류 · 기업구조조정(CR-REITs) · 개발전문 · 일반부동산 리츠 등 - 운용주체에 따른 분류 · 자기관리형: 실체 조직 · 위탁관리형: paper company · 특수(기업구조조정)리츠: paper company	- 투자대상에 따른 분류 · 임대형: 부동산매입 후 임대 · 대출형: 부동산 개발회사에 대출 · 경공매형: 경공매부동산 매입후 임대,매각 · 개발형: 직접 개발, 분양 또는 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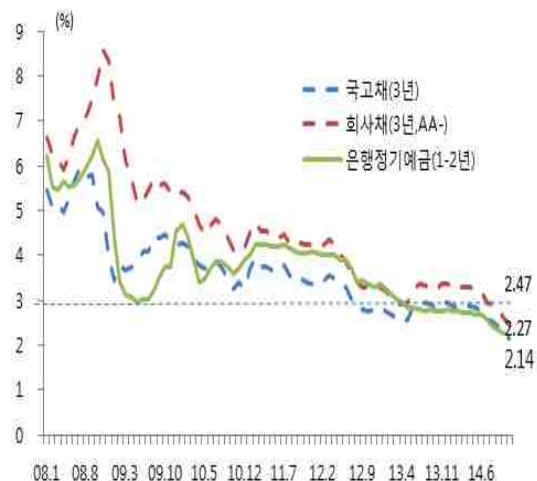
- 부동산 간접투자시장은 주식시장의 위축과 저금리 지속에 따른 예금, 채권, 주택 등 전통적 투자수단의 수익률 저하 등을 배경으로 성장함
  - (위험자산) 금융위기 이후 수도권 부동산시장은 매매가격은 하락하고, 글로벌 증시의 상승 추세와는 달리 국내 주가는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 금융위기 이후 국내 주택가격 증가율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수도권 주택 매매시장은 매수수요 부족, 공급 불균형, 가격하락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장기침체를 지속하고 있음
    - 금융시장 안정과 초저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국내기업의 경영 부진으로 글로벌 증시의 상승 추세와는 달리 국내 주가는 침체를 지속
  - (안전자산) 기준금리 인하 등 초저금리 현상 심화로 은행 등 금융기관의 수신금리가 하락하고, 우량 채권수익률도 빠르게 하락
    -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08년 10월 5.25%에서 2% 수준으로 급락했다가 이후 3.25%로 상승하다가 2015년 현재 다시 2.0%로 하락
    - 은행 정기예금금리(1~2년)도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2015년 2.2% 대를 지속
    - 시장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2014년부터 우량 채권수익률이 2%대로 진입하고, 채권형펀드의 수익률도 2%대에 머물고 있음

< KOSPI 및 주택가격 연 등락률 >



자료 : 한국은행.

< 국내 채권수익률 및 예금금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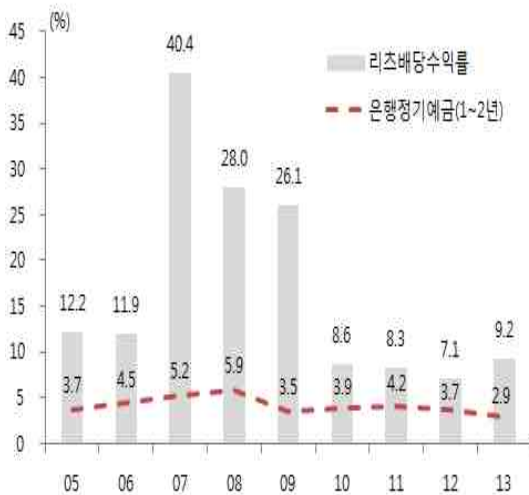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 2. 국내 부동산 간접투자시장의 특징1)

○ (투자수익률) 금융위기 이후 국내 부동산간접투자 기구의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매우 실적을 기록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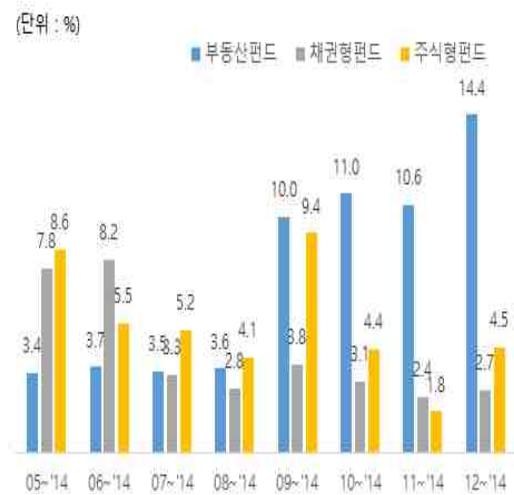
- 금융위기 이후 회복되던 국내 경제상황이 2011년부터 악화되면서 주택, 예금, 펀드 등 전통적 투자수단의 투자 수익률이 매우 저조
  - 수도권 주택시장의 경우 금융위기 직전의 최고점에서 2014년말 현재 약 8% 가격 하락하여 자본손실을 겪고 있음
  - 초금리 기조 속에 은행 정기예금금리는 연 2%대, 채권형펀드의 경우 2012년~2014년 연평균 약 2.8%, 주식형펀드의 수익률은 2012년~2014년 연평균 약 4.5%를 기록
- 반면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간접투자 기구의 수익률은 전통적 자산시장의 투자 수익률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높은 수익률을 창출
  - 리츠 수익률은 금융위기 전후의 높은 수익률만큼은 못하지만 최근 여전히 8%대 수준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
  - 부동산펀드의 경우 2005~2014년 연평균 수익률은 다른 펀드에 비해 낮지만 금융위기 이후 2009년부터는 월등히 높음(2012~2014년 연평균 14.4%)

< 리츠의 연평균 배당수익률 추이 >



자료 : 리츠협회.

< 부동산펀드 연평균 수익률 추이 >



자료 : 금융투자협회 .

주 : 2014년의 경우 3분기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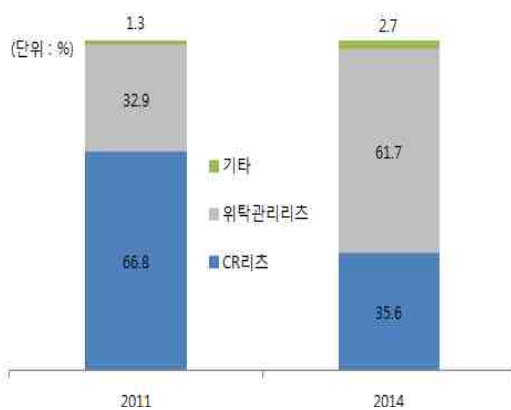
1) 부동산 간접투자시장의 특징을 투자수익률, 투자방식, 투자자산, 투자주체 등으로 세분하여 분석함.



○ (투자기구 유형) 초기의 고수익·고위험 투자 유형 형태에서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형태의 간접투자기구의 비중을 늘리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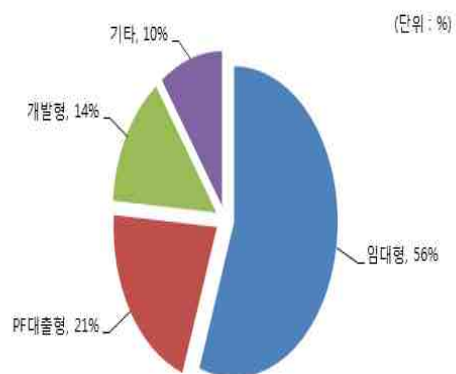
- 리츠의 경우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에 투자하는 CR리츠에서 최근 명목형회사(papaer company) 형태의 위탁관리리츠 중심으로 운용<sup>2)</sup>
  - CR리츠가 전체 리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2년말 65.8%에서 2014년말 35.8%로 큰 폭 축소
  - 반면 투자와 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위탁관리리츠의 경우 2012년 32.9%에서 2014년말 61.7%로 큰 폭 증가
  - 특히 투자규모가 작을수록 위탁관리형의 비중이 높음(2014년 6월말 현재 리츠 투자규모 100억원 미만의 위탁리츠 비중이 약 93%)
- 부동산펀드의 투자 유형도 과거 PF대출형 및 개발형 위주에서 점점 리스크가 작은 임대형 위주로 변해가고 임대형이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 부동산펀드의 부동산개발사업(PF)에 투자하거나 개발하는 위험성이 높은 대출형은 감소하는 대신 임대형이 꾸준히 증가
  - 2009년 말 5.5조원이었던 임대형 부동산펀드의 수탁고는 2010년 말 7.2조원, 2011년 말 8.5조원, 2012년 말 10.9조원, 2012년말 11.5조원을 기록(2013년 4월 현재 임대형 56%, PF대출형 21%, 개발형 14% 등)

< 리츠 유형별 비중 추이 >



자료 : 리츠협회,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재인용.

< 부동산펀드 투자유형별 순자산 >



자료 : 금융투자협회, 한국금융연구원 재인용.  
주 : 2013년 4월 현재.

2) CR리츠는 주식을 발행해 투자자 자금을 모은 뒤 기업구조조정용 매물 부동산(빌딩)에 투자해 얻은 수익을 나눠주는 펀드이며, 위탁관리리츠는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투자 및 자산운용 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외부의 자산관리회사(AMC)에 위탁한 리츠임.

○ (투자 자산) 침체를 지속하는 주택보다는 수익 창출이 가능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국내외 투자를 늘리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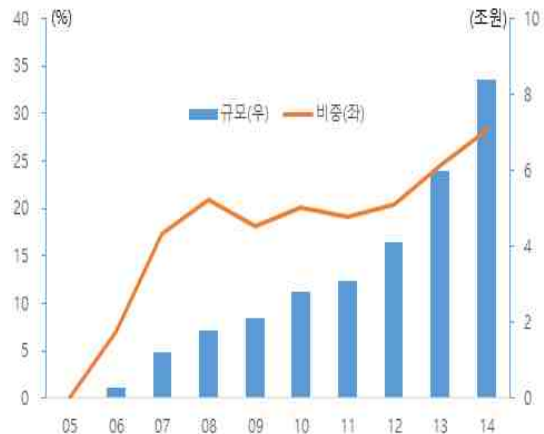
- 리츠 및 부동산펀드 모두 주로 개인들이 직접 투자하는 주택 보다 오피스 등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
  - 리츠의 경우 2014년 6월말 현재 오피스 69.1%, 리테일상가 19.1%, 호텔 4.8% 등 상업용부동산에 약 93% 투자한 반면 주택에는 3.7%에 그침
  - 부동산펀드의 경우도 2012년 조사된 바에 의하면 오피스 투자가 60% 이상이며,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작은 대형 상업용 부동산 임대형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
- 부동산펀드를 중심으로 투자가 용이한 상태에서 해외 상업용 부동산 투자의 비중을 증가시키고, 안정적이면서 수익성 높은 임대형 투자를 늘리고 있음
  - 다수의 투자자들에 의한 분산 공동투자가 가능함으로써 위험관리가 가능하고, 투자지원 절차도 직접투자에 비해 간소
  - 대표적인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인 부동산펀드의 경우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해외 투자 부동산펀드의 2014년 설정규모는 2006년 대비 28배 증가한 8.4조원으로 전체 부동산펀드의 28.3%를 차지

< 국내 리츠의 자산규모별 구성 >



자료 : 리츠협회.  
주 : 2014년 6월말 기준.

< 국내 부동산펀드 해외투자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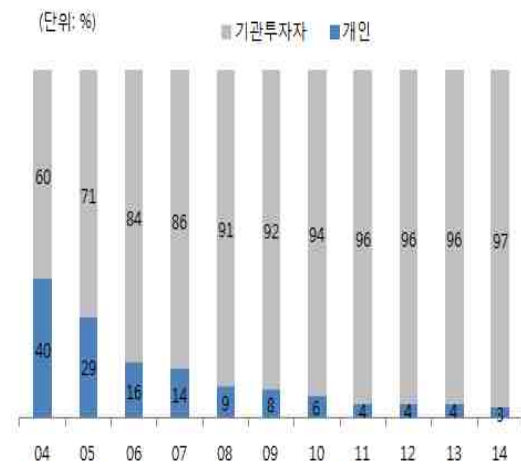


자료 :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 재인용.  
주 : '비중' = 전체 부동산펀드 대비 비율.

○ (투자주체)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의 투자 주체를 보면 개인의 비중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대신 기관투자자들의 비중이 빠르게 커지고 있음

- 부동산펀드 등에 개인투자자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으나 부동산펀드에서 차지하는 개인투자자의 비중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음
  - 2004년 출범 당시 40%의 개인투자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2014년 3% 수준으로 하락
  - 리츠의 경우에도 정확하게 조사된 바는 없지만 주로 연기금, 재단, 은행, 보험사, 증권, 사모펀드 등이 주된 참여자인 바, 소액 개인의 참여 역시 저조할 것으로 판단
- 현재 대부분의 투자가 대형 기관투자자 위주의 사모펀드이고, 금융위기 이후 연기금의 대체투자가 강화되면서 부동산간접투자를 늘리고 있음<sup>3)</sup>
  -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대체투자수단으로 부동산펀드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의 경우 총 금융투자자산 대비 대체투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현재 그 비중은 2014년 11월말 현재 10.6%(43.9조원)
  - 대체투자 중 대부분이 간접투자 형식의 부동산 투자의 규모가 빠르게 증가, 2014년 11월말 기준 대체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1.9%

< 국내 부동산펀드 투자 주체 추이 >



자료 : 금융투자협회.  
주 : 기관투자자는 일반법인 및 금융기관 등.

< 국민연금의 부동산투자 추이 >



자료 : 국민연금.  
주 : '비중' = 전체 대체투자 대비 비율.

3) 대체투자란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전통적인 투자 상품이 아닌 사모펀드, 헤지펀드, 부동산, 벤처기업, 원자재, 선박 등 다른 대상에 투자하는 방식을 일컫음.

### 3. 시사점 : 향후 전망과 과제

#### (1) 향후 전망

- 전통적 투자수단의 수익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수익성과 안전성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간접투자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전통적 투자수단의 수익률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의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아, 투자처를 잃은 대규모 부동산금이 높은 수익률을 찾아 부동산간접투자시장으로 집중될 가능성
    - 현재 주택 직접투자, 채권 및 주식, 예금 등의 평균 수익률은 연평균 1~2% 수준에서 머물고 있음
    - 부동산펀드의 경우 2011년~2014년 연평균 약 10.6%, 2012년~2014년 연평균 약 14.4%, 리츠 수익률도 금융위기 전후의 높은 수익률만큼은 못하지만 여전히 8%대 수준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
    - 앞으로 소액투자자까지 가세할 경우 넘쳐나는 시중 부동산금이 부동산간접투자기구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음
- 일본처럼 부동산간접투자시장의 성장은 국내 부동산시장의 패러다임을 직접투자 중심에서 간접투자 중심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됨
  - 일본의 경우 2000년대 들어 초저금리·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부동산 경기침체 시기에 부동산간접투자시장이 빠르게 성장
    - 일본은 2000년 리츠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투자자의 배당소득세율 및 양도소득세율 인하 등 세제혜택에 따른 수익률 향상과 기업, 기관 등 재무적 투자자의 임대주택 시장 참여 확대
    - 일본은 전통적으로 부동산버블 붕괴 이후 임대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면서 임대주택 사업자는 저렴한 토지를 매입하거나 빌려서 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적정 투자수익률이 가능
    - 일본의 REITs는 2001년 도입된 이후 높은 유동성 및 소액 지분투자가능 등의 다양한 장점으로 인해 2004년 이후 급성장하였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전세계 REITs 시장에 분산투자 추세

- 부동산간접투자시장의 성장은 그동안 직접투자에 의존하던 부동산투자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고령화 사회가 진전되면서 각종 펀드상품에 대한 수요를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익성뿐만 아니라 편리성 등을 지니고 있는 부동산 간접투자시장이 빠르게 성장 전망
  - 특히 부동산 경기와 관계없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저금리시기에 안정적인 투자수단으로서 시장니즈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저성장저금리 시대의 새로운 대체투자 상품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
  - 리츠가 발달한 국가의 경우 투자 대상이 오피스뿐만 아니라 물류, 창고, 헬스케어 등으로 다양해진 것으로 판단할 때 국내 시장 역시 투자대상이 확대될 경우 시장 규모는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참여방식의 공동투자가 용이하고 절차가 간소한데다 세제혜택, 레버리지 등 투자 메리트뿐만 아니라 정부의 서민주거 안정화 대책, 전월세 가격 폭등 등과 맞물려 임대주택에 대한 부동산간접투자시장이 확대될 수 있음

## (2) 정책 과제

### ○ 고령화대비 가계 자산증식 차원에서 가계의 부동산간접투자시장 참여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고령화 대비를 위한 자산증식의 방편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바, 세제혜택 등을 통한 일반투자자의 참여를 확대시킬 필요
  - 초저금리 시기에 안정적인 투자수단으로서의 시장니즈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소액으로서도 주택에서 벗어나 오피스 등 수익성이 높은 상업용 건물에 투자 가능
  - 부동산펀드는 소액 투자로도 안정적인 임대수익 및 배당수익을 얻을 수 있고 지역별, 유형별 분산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투자대안으로 부각될 수 있음
  - 하지만 여전히 기관투자자 위주의 사모 방식에 집중되어 있으나 일반 소액투자자도 참여 가능한 공모방식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소액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 등을 강구할 필요

- 주택경기 회복, 임대시장 정상화, 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부동산 간접투자시장에 대한 적절한 유인과 제도정비가 필요함
  - 부동산간접투자시장의 확대는 장기침체에 빠진 주택경기를 회복시키고 주택 임대시장을 정상화시키고, 기업의 재무구조도 개선할 수 있음
    - 투자대상으로서 주택을 확대시킬 수 있으며 금융위기 이후 위축되었던 부동산 시장의 회복을 촉진시킬 수 있음
    - 비정상적인 주택임대시장의 정상화 차원에서도 부동산간접투자시장을 성장시킬 필요
    - 뿐만 아니라 기업의 불필요한 부동산 편입을 확대시켜 이를 유동화시킬 수 있을 경우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음
  - 향후 부동산간접투자시장의 활성화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정비도 필요
    - 리츠와 부동산펀드로 이원화된 부동산간접투자제도 뿐만 아니라 사모투자 와 관련한 법제를 종합적으로 재정비하여 입법 미비에 다른 문제점을 최소화하여 성장하고 있는 시장을 위축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
    - 최근 부동산 취득 후 등록된 펀드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짐에 따라 부동산펀드의 위축이 우려되고 있음
    - 국내 신규 투자대상 발굴뿐만 아니라 해외부동산에 대한 투자 확대도 필요한 상황에서 부동산간접투자운용의 전문성, 리스크관리, 국가 차원에서 의 종합 네트워크 구축도 절실

박덕배 전문연구위원 (031-288-7951, dbpark@hri.co.kr)

HRI 경제 통계

---

주요 경제 지표 추이와 전망

---

< 국내 주요 경제 지표 추이 및 전망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E)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	연간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2.3	3.0	3.7	3.6	3.6	3.5	3.6	3.6
	민간소비 (%)	1.9	2.0	2.0	2.6	2.3	3.0	2.6	2.8
	건설투자 (%)	-3.9	6.7	1.9	1.8	1.9	1.8	4.3	3.0
	설비투자 (%)	0.1	-1.5	7.5	3.9	5.7	4.2	6.0	5.1
	지재투자 (%)	8.6	7.3	6.5	5.9	6.2	7.3	7.0	7.1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달러)	508	799	392	408	800	320	360	680
	무역수지 (억 달러)	283	440	202	231	433	192	234	426
	수출 (억 달러)	5,479	5,596	2,833	2,936	5,770	2,949	3,074	6,023
	(증가율, %)	(-1.3)	(2.1)	(2.5)	(3.7)	(3.1)	(4.1)	(4.7)	(4.4)
	수입 (억 달러)	5,196	5,156	2,631	2,705	5,336	2,757	2,840	5,597
	(증가율, %)	(-0.9)	(-0.8)	(2.6)	(4.4)	(3.5)	(4.8)	(5.0)	(4.9)
소비자물가 (평균, %)	2.2	1.3	1.4	1.9	1.7	2.0	1.9	1.9	
15~64세 고용률 (%)	64.2	64.4	65.0	65.6	65.3	66.0	66.5	66.2	

주 : E(Expectation)는 전망치.